

‘제주대 아라복합문화센터’ 조성 본격

제주도·제주대학교 건립·운영 업무협약 체결
476억원 투입… 아라캠퍼스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대학 구성원·지역 주민 위한 수영장·실내체육관 등 마련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에 조성되는 지상 4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이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꾸러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대학교 총장실에서 제주대학교와 ‘(가칭) 제주대 아라복합문화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 양덕순 제주대학교 총장은 사

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시설 준공 후 도민 이용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제주도와 제주대학교는 협약에 따라 센터 건립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준공 이후 도민이 시설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간다.

아라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지난 3월 교육부 ‘학교복합화시설 사업’ 예비선정에 이어 5월 최종 선정되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

랐다.

이번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2032년 12월까지 국비 333억7700만원(70%)과 지방비 143억500만원(30%) 등 총 476억8200만원을 투입해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내 연면적 1만㎡,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한다.

센터에는 수영장(25m 8레인)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평생교육센터 등이 들어서며 대학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문화·교육 공간으로 운영된다.

아라동 지역은 공동주택이 늘고 제주대학교와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주거 기능이 확대되면서 생활체육·문화 여가에 대한 수요는 커졌지만

기존 공공체육시설만으로는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모자란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공유지 부족,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별도의 토지 매입 없이 제주대학교 부지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위성곤 지사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대학의 공간을 함께 누리고 주민의 생활체육 기회가 넓어지는 상생의 출발점”이라며 “아라복합문화센터가 도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고 대학과 지역사회를 더욱 가깝게 잇는 공간이 되도록 제주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쪽파 파종 구슬땀 24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쪽파 파종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읍·면 심야주유소 추가 모집
애월·조천·구좌 제외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31일까지 읍·면 지역의 늦은 밤 주유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심야주유소 운영 시범사업’ 참여 주유소를 추가 모집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추가 모집 대상은 1차 접수 지역인 애월읍, 조천읍, 구좌읍을 제외한 도내 읍·면 지역 소재 주유소로 근무자의 역할과 운영 시간에 따라 1인당 시간당 2만3000원에서 3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일반 주유소 최대 2명, 셀프 주유소 최대 1명이다. 또한 심야주유소 지정 및 운영 시간 안내를 위한 홍보비도 업소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운영 시간은 주유소 여건에 따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2시간) 또는 11시까지(3시간) 중 선택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하거나 제주도 경제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주유소에 대한 서류 검토와 심사를 거쳐 9월 중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제주시, 상반기 이동 토지 개별공시지가 검증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대상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 토지 225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에 나선다. 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치고, 8월 말까지 검증 절차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증 대상은 올해 상반기(1~6월)에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유형별로는 분할 1537필지, 합병 268필지, 지목변경 425필지, 기타 23필지 등이다.

검증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15명)에게 의뢰해 추진되며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검증이 완료되면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9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 전체 토지 가운데 도로·구거·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만2639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 공시됐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성산 수산·조천 와산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신설
행안부 신규사업 선정… 2027~2030년 416억원 투입

서귀포시 성산읍지역과 제주시 조천읍지역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신설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2027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신규사업에 성산을 수산1지구와 조천읍 와산지구가 선정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며, 총 41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산1지구에는 290억원, 와산지구에는 126억원을 들여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우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한꺼번에 유입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지하로 침투시켜 우수의 급격한 유출을 줄이는 시설이다. 특히 주거지와 농경지, 도로 등 상습침수지역의

침수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저류된 빗물을 침투시켜 지하수자원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수산1지구와 와산지구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침수 피해가 반복돼 우수유출저감시설 확충 필요성이 제기돼 온 지역이다. 수산1지구는 2021년 태풍 ‘찬투’와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며, 와산지구도 2025년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다량의 빗물이 단시간에 유입되면서 침수피해를 입었다.

제주도는 지역별 침수 원인과 지형적 특성을 반영해 저류시설 설치와 우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농경지 181.1ha와 주택 258동 등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집중호우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서귀포시, 국유임도 신설·보수… 산림 접근성 개선

서귀포시는 국유림의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산림재해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한 남원읍 하례리 산림 내 국유임도 시설사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2월 환경·산림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검토를 실시하고 임도 신설의 필요성·적합성·타당

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시는 3억8000만원을 투입해 하례리 일대에 150m 규모의 국유임도를 신설했다. 또한 기존 노선 중 1730m 구간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구조개량 및 보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가 관리하는 국유임도는 이번 신설 구간을 포함해 총 21개 구간, 약 56km다. 백금탁기자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추진

강동우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 내 학교의 제주4·3평화·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제454회 제1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

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위원장은 제주4·3사건에 대한 학생의 역사인식을 증진해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4·3평화·인권교육의 전국화 등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 내용을 새롭게 새롭게 규정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제7조제2호 중 ‘교육자료’를 ‘교육자료 및 인정보서’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다. 이태윤기자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